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85 호

2023년 12월 20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2 월호 요약
2. 3 차 ESG 멘토링 결과 공유
3.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2022-2023 활동 리뷰
4.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 결과공유 (11/21)
5. 제 3 회 아동권리포럼 결과공유 (10/31)
6.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결과공유

■ 본부 소식

1. CFO, COP28 계기 기후행동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선언
2. 정의로운 전환과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3. 수자원 회복탄력성을 위한 기업 행동 5 가지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카카오

■ UNGC & 회원사 뉴스

1. LX판토스,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UNGC 가입
2. 신원, ESG 경영 강화...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3. 유한킴벌리, 40년간 국내외 숲에 나무 식재... '푸른 강산' 조성 노력
4.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5. 네이버, 국가보훈부와 보훈문화 확산 손잡는다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2 월호 요약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39 | December 2023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Korea Leaders Summit 2023'이 지난 11월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성료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201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Korea Leaders Summit)'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Korea Leaders Summit 2023'는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와 기업·기관 대표 및 실무진 500여 명이 참여하며, 2030년까지 절반의 시점에서 SDGs 및 2030 의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며 가속화하기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번 Monthly Insights를 통해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3'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SG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대한 해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Monthly Insights 12 월호의 주제는 ‘국내 최대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코리아 리더스 서밋(Korea Leaders Summit) 2023!’ 입니다. 지난 11 월 16 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성료된 본 행사는 기업의 SDGs 및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필요 조치와 대응 방안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Monthly Insights 는 세션별 핵심내용 요약을 통해 행사의 현장감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ESG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개회사, 축사, 특별연설 및 폐회사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본문에는,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의 개회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의 특별연설을 비롯하여, ‘평화, DEI 를 위한 음악회’, ‘Forward Faster’ 캠페인 영상 등 다채로운 행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LEAD 그룹 세레모니



이어서,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회원사를 「UNGC 한국협회 LEAD 그룹」으로 위촉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도 LEAD 기업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주)두산 △DRB동일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유한킴벌리 △KB증권 △포스코이앤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콜마홀딩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2024년 한해 동안 지속가능성 의제 확산을 위한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UNGC 10대 원칙 내재화 및 SDGs 달성을 위해 UNG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참여사 세레머니



다음으로, 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약속에 대한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프로그램의 Round II 참여기업 세레머니가 열렸습니다.

△강원개발공사, △넥센타이어, △DGB금융그룹, △HLB, △LS일렉트릭, △LG이노텍, △LG전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KCC글라스, △코웨이,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세YES24홀딩스, △한전산업개발, △해양환경공단, △효성첨단소재 등 참여사는 앞으로 약 6개월간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 활동의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개발 및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업의 인권 여정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ESG 우수 사례 확산 및 활발한 UNGC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LEAD 그룹'의 위촉 세레머니, UNGC 가치에 동참하고 인권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의 런칭 세레머니 등 주요 행사를 담았습니다.

[특별세션 1] ESG 공시와 기업 대응



첫번째 순서로 진행된 특별 세션은, 'ESG 공시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ESG 공시 의무화 관련 도입 시점과 기업 대응 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업, 투자자, 평가사 등 공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외 ESG 공시 흐름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분과세션 1]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와 기업의 대응



첫번째 분과세션으로 진행된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와 기업의 대응'에서는, 공급망 실사법 시행 1년이 다가오는 독일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알아보고, 다가올 공급망 실사법 의무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ESG 공시, 기업 인권, 지속가능금융, 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기업 지속가능성 의제의 주요 논의를 세션별 핵심내용 요약에 담았습니다.

(1)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집’은 지속가능금융의 발전 배경부터 개념 정의, 관련 이니셔티브 및 국제 가이드라인, 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art1에서는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의 주체 기관들의 역할들을 정의하고, ESG 투자, ESG 대출, ESG 금융상품 등 지속가능금융의 유형을 소개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활동과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의 발판이 되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평가와 관련한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SFDR(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CSRD(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ESRS(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 표준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 표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Part 2에서는 12개의 UNGC 회원사의 다양한 지속가능금융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KB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애큐온캐피탈, △롯데카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마스틴투자운용,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각 회원사들의 지속가능 경영 비전, 목표, 전략, 거버넌스를 살펴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반영된 ESG 전략과 지속가능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UNGC 신규 발간물인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와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11월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시행안이 합의되었으며, 알자베르 의장은 UAE가 기금에 1억달러(약 1천 300억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 1억달러, 영국 5천만달러(약 650억원), 미국과 일본은 각각 1천 750만달러(227억원)와 1천만달러(약 130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EU)대표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독일의 기부금에 더해 1억4천500만달러(약 1천886억원)를 추가로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은 약 4억2천만달러(약 5천464억원)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개별 국가들의 추가 기부 약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28, 개도국 위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COP28, 개도국 위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작년 중대재해 사망자 644 명...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등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G 최신 동향



맥킨지,
『직장내 여성에 대한 4가지 편견』



자연기반해법(NbS) 투자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끝으로, 'ESG 최신 동향' 코너에서는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서 발간한 직장내 여성에 대한 4 가지 편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11/30 - 12/12 동안 진행된 COP28 을 맞아 자연기반해법(Nbs)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 전용으로 제공되는 웹 매거진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의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3 차 ESG 멘토링 결과 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11월 중 총 6개 ESG 멘토링 그룹별 3차 멘토링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를 맡은 6개 기업·기관(기술보증기금, 유한킴벌리, 포스코이앤씨, 한국가스기술공사, DRB 동일, LG 디스플레이)이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29개 멘티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시: 2023년 10월 19일 ~ 11월 6일
- 장소: 각 멘토 및 멘티 기업 사옥, UNGC 한국협회 사무실

[한국가스기술공사, 유한킴벌리]

10월 19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유한킴벌리의 ESG 멘토링 세션이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먼저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 및 티타임을 가지며 네트워킹을 하였고, 이어서 광주도시공사가 지속가능보고서의 전체 개요, 내용 등 지속가능보고서에 담아야 할 사항과 진행과정 등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상세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멘티 기관의 ESG 추진현황과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나누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멘토링 회의 시 요청받은 항목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내부성과평가 반영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세션을 마쳤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는 DEI 정책을 사례와 주요 활동 중심으로 공유했습니다.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확대를 위해 인사팀과 협업하여 도입한 유연근무제도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개최, DEI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DEI 정책 확산을 위해 사원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확인하고, 유관 부서에 전달하여 관련 제도를 구축 중인 현황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에서 공개한 ESG 트렌드 주요 내용(상장 비상장 기업 ESG 보고서 작성 비율 50% 증가, 과반수 기업이 ESG 이슈를 사내 중단기 전략에 포함하고 있지만 KPI 설정은 50% 정도 미흡한 수준 등)을 멘티사들과 공유하고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3차 ESG 멘토링



유한킴벌리 3차 ESG 멘토링

[DRB 동일, LG 디스플레이]

10월 24일에는 DRB 동일이 3차 멘토링을 자유로운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겪은 초기의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특히 ESG 관련 결정을 돕기 위해 ESG 위원회 및 각 분야 분과위원회를 수립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 및 이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정부 및 국제 기준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업계별 고객사의 요구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고객사의 공급망 ESG 평가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와 같은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또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인권영향실사 등에 대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컨설팅 업체 선정과 각 현업 부서와의 협의 등 발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멘토사의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10월 31일에 진행된 LG 디스플레이 멘토링 세션에서는 먼저 LG 디스플레이 공급망의 전과정평가(LCA) 사례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단계의 주요 부품의 현장 기반 데이터 수집과 생산공정 특성 반영 과정 등을 설명하고, △프로세스 단계의 주요 해외 인증을 통한 평가 검증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공급망 ESG 실사 대외평가 프로세스에서는 RBA 기반 공급망 행동규범 준수여부 파악, 연 1 회 현장 실사 진행, 개선 조치 수행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협력사 스스로 ESG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여 잠재 ESG 리스크를 저감하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Net-Zero)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Scope 1, 2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3%, 2040년까지 67%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멘토사의 ESG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RB동일 3차 ESG 멘토링



LG디스플레이 3차 ESG 멘토링

[포스코이앤씨, 기술보증기금]

10/31일에는 포스코이앤씨의 3차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기후변화 적응방향에 대해, 기후변화 전략 수립 절차에 따른 피해 사례 분석, 핵심기술인재 협업, 유관부서 협의 등에 대한 전략 방향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적응 이행으로는 종합적인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 현장별 맞춤형 폭염 리스크 대응체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ESG 내재화를 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외부전문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직원들의 의견들이 제도화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6 일에 진행된 기술보증기금 멘토링 세션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활동과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준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 중에서는 K-택소노미를 기반으로 한 기술평가와 인증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투명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보증해 주고 금리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클린플러스 보증, 책임경영약정 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 ESG 경영을 실천하며 국민 참여와 신뢰경영을 강조하고, 이사회 운영과 윤리준법경영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Q&A 시간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한국 ESG 기준원, NICE, Quantified ESG 등)에서 공신력 있는 ESG 인증을 받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3차 ESG 멘토링



기술보증기금 3차 ESG 멘토링

2023 년도 UNGC 한국협회 ESG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멘토 멘티 참여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년도에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멘토/멘티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 (070-4327-9768)

자세히 보기

3.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2022-2023 활동 리뷰



UNGC 한국협회, 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가 2020 년에 공동발족한 본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합니다. 2023 년 '12 월 현재 34 개의 기업이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 중이며, 2022-2023 년에 걸쳐 많은 국내 기업 실무진들이 CoREi 이니셔티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민간 부문의 힘을 모았습니다. 본 소식은 2022-2023 년에 CoREi 를 통해 진행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합니다.

Events

2022 Korea Leaders Summit: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결과 상세보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세션은 국내 최대 지속가능 컨퍼런스인 UNGC 한국협회의 2022 Korea Leaders Summit 의 분과세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의 발제 및 김종필 LG 화학 지속가능전략팀장의 사례발표 후, 정부, 기업, 학계 등의 제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김범수 RE100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최규중 기업 RE100 지원센터장, LG 화학의 김종필 팀장, SK 하이닉스 이승준 ESG 전략팀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상생협력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공유하였습니다.



2023 Korea Leaders Summit: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 (결과 상세보기)

<넷제로 실현의 핵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 세션은 UNGC 한국협회의 2023 Korea Leaders Summit의 분과세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의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신언빈 ERM 코리아 파트너의 발제 후, 국내외 동향에 비추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필요성 및 방안,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는 ERM 코리아 신언빈 파트너와 함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최낙준 삼천리자산운용 그린투자팀장, 권오주 현대모비스 그린전략팀 책임매니저, 김진일 네이버 Environment 팀 매니저가 패널로 참여하여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UNGC 2022 년 환경 실무그룹 (결과 상세보기)

UNGC 한국협회는 CoREi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3 년 11 월 2 일(수) 환경 실무그룹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실무그룹에서는 CoREi 가 발간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국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 및 현안 발표를 통해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기후 행동" 웨비나 ([결과 상세보기](#))

CoREi는 2023년 3월 2일(목)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과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후행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혁신과 기업의 정책 참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내-유럽 기업 지식공유 세미나: 1.5도 목표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세션 ([결과 상세보기](#))

CoREi 는 2023 년 8 월 23 일(수)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과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정책 인게이지먼트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한 본 행사에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기후정책 입장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찾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국회 RE100 간담회 ([결과 상세보기](#))

CoREi 는 2023 년 8 월 30 일(수) 이원욱 의원(외통위), 양정숙 의원(경무위), 이용빈 의원(산자위)과 함께 간담회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기업에게 듣는다"를 주최하였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본 행사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제로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7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CART) ([결과 상세보기](#))

2022 년 1 월 18 일(화)에 개최된 제 7 차 기후행동라운드 테이블(CART)에서는 넷제로와 저탄소 사회를 위해 국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의 기후행동 동참을 위한 관련 정책과 규제 트렌드, 이행방안, 기업 사례를 다룬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8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CART) ([결과 상세보기](#))

2023 년 1 월 16 일(목)에 개최된 제 8 차 기후행동라운드 테이블(CART)에서는 SBTi 및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국내외 최신 현황과 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토론을 통해 기업의 기후행동을 위한 모멘텀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Scope 3 관리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Principles of CoREi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원칙

CoREi는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자발적 민간 이니셔티브인 CoREi는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길 기원하는 바, 이니셔티브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2023 년도에 CoREi 3대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지지함으로써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합니다.

1. 넷제로를 향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및 확대에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2. 기후변화 완화 및 환경 보호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3.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정책 마련 및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CoREi SNS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CoREi는 이니셔티브의 활동 소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CoREi 참여사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REi 참여사 중 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 본 메일 하단의 운영진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Coming Soon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홈페이지 오픈('24 년 초 예정):** 재생에너지 관련 행사 및 자료 발간, 정책 제언 등을 통해 기업 역량 강화 및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는 이니셔티브의 여러 활동과 공지사항,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 등을 참여사들에게 더욱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재 CoREi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24 년 초 공개 예정이오니, 참여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제 9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 제 9 차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은 2024 년 1 월 30 일(화)에 개최 될 예정입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ature-positive 경제와 한국 기업에 영향과 SBTN 가이드라인 및 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의 SBTi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가 신청 및 자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제 5 차 기후행동 컨퍼런스(CAC):** 제 5 차 기후행동 컨퍼런스(CAC)는 2024 년 3 월 19 일(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후행동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의견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가 신청 및 자세한 프로그램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Publications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및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 발간

CoREi 는 '22 년 11 월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실무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어 '23 년 3 월에는 플랜 1.5(Plan 1.5)와 함께 "2030 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CDP 데이터에 기반해 2030 년 국내 재생에너지 잠정 수요를 최초로 예측하였으며, 재생에너지 공급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국문)
-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영문)
-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 (국문)
-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 (영문)

SBTi 기준 및 권고안, 넷제로 표준 번역 발간/업데이트

CoREi는 SBTi에서 '23년 4월 업데이트한 “SBTi 기준 및 권고안 5.1 (SBTi Criteria and Recommendation)” 및 “SBTi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지침(Supplier Engagement Guidance)”을 '23년 11월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 SBTi 단기 목표 기준 및 권고안 5.1
- SBTi 공급망 탈탄소화 인게이지먼트 지침

CoREi 참여 및 기타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gckorea@globalcompact.kr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cdp@kosif.org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 climate@wwfkorea.or.kr



자세히 보기

4.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 결과공유 (11/21)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 결과 공유

2023년 11월 21일

주최: 국제이주기구(IOM), 대한상공회의소(KCCI),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2시 ~ 6시

장소: 르 메르디앙 서울 명동, 미드센추리룸 1&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1월 21일(화), 국제이주기구(IOM), 대한상공회의소(KCCI)와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 증진'을 주제로 한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을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국내 기업인 40여 명과 IOM 베트남 대표부, IHRB(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유럽상공회의소(ECCK)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립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 관행이 마련되는 데 국내 기업들이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글로벌 기업의 모범 사례와 도구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인사말

IOM 한국대표부 스티븐 해밀턴(Steven Hamilton) 대표는 워크숍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를 환영하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현지 및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채용 관행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을 확립하고, 현대판 노예제도를 근절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EU에 수출하는 약 18,000개 한국 기업이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대한 글로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리스크가 낮다고 여겨졌던 영국, 미국, 독일 등의 서부시장에서 이주 노동자 대상 인권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소개와 함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도입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고용·노동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OM 한국대표부 스티븐 해밀턴(Steven Hamilton) 대표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2. [세션 I] 글로벌 공급망 내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에 관한 국제 동향 및 노력

첫 번째 세션에서는 IOM 베트남대표부 아나스타샤 비니첸코(Anastasia Vynnychenko) 윤리적 고용 증진(CREST) 프로젝트 매니저의 국제 공급망 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의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시아에는 2,4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이는 전 세계 이주 노동자의 14.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중 39%는 여성이라는 아시아 내 이주 노동자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주로 중/저숙련 부문에 고용되고, 저숙련 및 민간 부문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강제 노동의 위험이 더 높다는 현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주 노동자는 비이주 노동자에 비해 강제 노동의 사례를 3배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적하며, 인권 실사 의무화 맥락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많은 리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공급망이나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 관련 리스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유럽상공회의소 카산드라 잔 탈봇(Cassandra Jeanne Talbot) 물류 및 운송·지속가능성·관광산업 위원회 과장은 인간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질적 고용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경제 번영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흐름은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mfori 조이스 초(Joyce chau) 이태지역국장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 노동자가 된 이들도 결국 가족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은 노동자의 가족까지 포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IHRB 구나 수브라마니암(Guna Subramaniam)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자문은 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Bottom-Up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세션 II] 해외 공급망 및 국내의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기업 공급망 리스크와 인권 실사'를 주제로, 공급망 ESG 리스크 및 노동자 권리에 관한 여러 보고서 설명과 함께, 전체 소싱국가의 절반이 공급망 ESG 위험국가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U, 미국 등 주요 기업 인권 실사 규제 및 이슈 등 복잡해진 기업 경영 환경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PRI Advance 출범과 같은 투자자들의 인권 촉진 활동, Acciona, HP 등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 및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 UNGC의 다양한 가이드언스를 소개하며, 공급망 내 이주 노동자 관리 및 지속가능성 증진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임선영 이주인권팀장의 '한국 내 이주노동과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현주소'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임선영 팀장은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이주민 중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는 미등록자를 고려하여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러 국제인권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이주민 인권상황에 대해 표명한 우려나 권고 중, 이주 노동자 인권상황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의 노동할 권리 보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은결 실장



4. [세션 III] IOM의 아시아 내 민간기업과의 이니셔티브 및 선례

마지막 세션에서는 IOM 베트남대표부 아나스타샤 비니첸코(Anastasia Vynnychenko) 매니저가 기업의 윤리적 고용을 지원하는 IOM CREST(Corporate Responsibility in Eliminating Slavery and Trafficking) 프로그램 및 내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IOM은 CREST를 통해 이주 노동자에게 ▲ 모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윤리적인 고용 및 접근성 향상, ▲ 근로 및 생활 환경 개선, ▲ 구제절차 제공 등 긍정적인 인권 영향 미쳤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업의 실사와 윤리적 채용 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5. 제 3 회 아동권리포럼 결과공유 (10/31)

[2023 제3회 아동권리포럼] 결과 공유

2023년 10월 31일

주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국회 ESG포럼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 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31일(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Children's Right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23 제3회 아동권리포럼>을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모든 아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기업들의 경영원칙에서는 아동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살펴 보고,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아동권리 존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1. 인사말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기업/기관 및 시민을 환영하며,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2012년에 수립한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의 성과와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은 제품과 서비스 소비자로서, 마케팅 광고 노출을 통해, 아동 노동자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경영원칙에 아동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떤 기업 활동이 아동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파악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과 정부,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다비니아 오베트 본디(Davinia Ovett Bondi)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글로벌 허브 국장



유니세프 에릭 니만(Erik Nyman) 기업과 아동권리 선임 고문

2. 기조강연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세이브더칠드런 다비니아 오베트 본디(Davinia Ovett Bondi)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글로벌 허브 국장은 'CRBP and Child Participation'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터, 시장,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원칙을 총망라한 최초의 기업 활동 지침이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CRBP)'이라며, 기업은 아동의 삶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실사에 아동권리를 포함하고, 아동의 이미 있고 윤리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Child Rights as an integral component of ESG' 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유니세프 에릭 니만(Erik Nyman) 기업과 아동권리 선임 고문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권리를 ESG경영의 필수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활동에서 아동권리를 위한 정책선언에서 더 나아가 아동영향평가와 개선조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에서 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성과보고를 요구하고,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주제 발표

3. 주제 발표

다음으로 공동주최 기관(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글로벌 인권경영 동향 및 아동인권'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을 토대로 한 독일 및 EU,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 인권 동향을 소개하며, 전세계적인 ESG 경영 및 인권실사 의무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동 노동은 20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노동 권리존중을 위한 인권실사 프로세스 및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과 사례를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노동 및 인권 이슈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류현 팀장은 올해 국내 기업의 ESG보고서를 통해 아동권리 존중 지수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평균 34점이라는 결과는 국내 기업이 아동노동 금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디지털 마케팅, 제품 생산 등의 ESG경영 전략 전반과 정책에 아동권리를 필수요소로 고려하거나 통합한 정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주체적 소비자로서의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아동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14~18세)으로 실시한 '기업에 대한 아동청소년 권리 인식조사' 결과에서 아동·청소년은 ▲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안전 고려, ▲ 재난 시 아동보호 지원을 평균 3.37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 기업 활동과 현장에서 아동보호 및 안전보장, ▲ 일하는 청소년 등에게 안전한 일자리 제공은 각각 3.12점, 3.13점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노동, 온라인 아동학대, 마케팅과 광고가 인권실사 부문에서 다소 느린 진전이 있는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강미정 팀장은 우리 사회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였다고 생각하며, 기업이 하는 활동들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종합 토론



4. 종합 토론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노충래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 아동권리보장원 김민설 아동위원은 아동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아동권리와 보장을 위한 주체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교육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며,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위해, 아동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광고나 마케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보다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 이지희 교수는 '아동권리 보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의 협력과제는 '아동에게 최우선인 것인가',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가' 여부를 꼭 반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홍혜인 변호사는 '기업과 아동법제'를 주제로, 아동법제가 기업의 아동인권 보장의 기준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며,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 하진화 매니저는 유해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카카오의 ▲ 카카오 청소년 보호정책, ▲ Digital For Kids, ▲ 청소년을 위한 카카오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 ▲ 알고리즘 윤리 헌장, ▲ 카카오톡 안녕가이드, ▲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오재철 과장은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 협력 체계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을 설명하고, 어린이제품의 경우 수입품이 인증제품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입업자,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대행업자 등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법을 준수하고 안전 의식과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이 인권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수립 및 실행 계획 개발을 통해 인권 존중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권 실무그룹 및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결과공유

기간: 2023년 5월 11일 - 10월 31일

수료 기업: (가나다 순): 넥센타이어, 동아쏘시오홀딩스, (주)두산, 두산에너빌리티, 마스턴투자운용, 삼성전자, CJ 제일제당, SK 가스,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일렉트릭, HL 만도, HLB, 에코나인, LS ELECTRIC(주), LG 디스플레이, 인천도시공사, 카카오, 포스코이앤씨,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전 KPS, 현대종합금속, 효성첨단소재 총 23 개사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CAA) 프로그램은 1.5°C 경로와 일치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과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5개월간의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22년 CAA 프로그램을 첫 번째 론칭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라운드를 론칭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온디맨드 세션, 해외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세션, 국내 전문가 세션 등으로 구성되어, 총 9 개의 온디맨드 세션, 7 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듈 구성]

모듈 1 온디맨드 세션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방법론 소개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소개의 내용을 다룹니다.

모듈 2 온디맨드 세션은 기업이 SBTi 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넷제로 표준 장기목표, 글로벌 기업의 SBT 산정 사례의 3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 3 온디맨드 세션은 Scope 1, 2 의 배출량 감축 활동과 Scope 3 배출량 관리, 측정 및 감축 활동 방법을 소개합니다.

[해외 전문가와의 워크샵 세션]



참여자들은 온디맨드 세션을 학습한 뒤, 총 7 번의 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WSP 캐나다(William Sale Partnership Canada)와 SBTi의 전문가들과 함께 온디맨드 세션을 복습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워크샵에서는 △GHG 프로토콜 기본 개념(조직 경계(Organizational Boundary), 출자비율(equity share), 통제력 접근법 (control approach), 운영 경계(Operational Boundary) 등), △Scope 3(Scope 3의 15 가지 카테고리, Scope 3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도구와 방법론, 공급업체 관리 등),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소개(개념 및 자료소개, 넷제로 표준 및 권고안, SBTi 서약방법 등), △Scope 1, 2, 3 산정 및 감축 전략(지역기반법/시장기반법, Scope 3 산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 SBTi 산정 도구,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임대자산의 구분 방법 등)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프로토콜 실습 세션에서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산정 과제를 통해 WSP 캐나다 전문가들과 함께 과제를 풀고 답안을 도출하는 매우 실무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워크샵]



국내 워크샵에서는 국내 전문가와 기업 모범 사례 발표를 통해 학습하고, 참여사간 SBTi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진규 삼일 PwC 파트너**의 Scope 3 산정 및 감축 전략에 대한 발표와 **SK 텔레콤 이재형 매니저**의 SBTi 목표 승인 사례 발표를 통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CAA 알럼나이 초청대화 세션에서는 2022 년도에 CAA 프로그램을 수료한 실무진들과 함께 SBTi 목표 승인 여정, SBTi 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CAA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섹터별 특이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사간 현황을 공유하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국내 워크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 SBTi 워크샵

CAA 2 번째 라운드에서는 특별히 섹터별 세션을 새로 개최하여, 각 참여사가 해당 섹터별(에너지, 건물, 금융기관, 정보통신기술(ICT), 금융기관, 운송 등) 워크샵에 참여하여 SBTi 의 최근 섹터별 지침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사항을 학습하였습니다.

에너지(Power) 섹터 워크샵

SBTi POWER SECTOR GUIDANCE

SCIENCE BASED TARGETS
DRIVING AMBITIOUS OPPORTUNITIES CLIMATES ACTION

Global electricity intensity

Electricity intensity (MT CO₂/EI)

Year

-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 (SDA): physical intensity convergence per MWh of electricity
- Based on IPCC's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approaching zero emissions by 2040

Read more:

- [Power sector guidance](#)
- [SDA report](#)

Emma Borjigin-Wang

에너지 세션에서는 **엠마 보르지진-왕(Emma Borjigin-Wang)** SBTi 리서치 매니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엠마 매니저는 에너지 섹터는 섹터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으로 모델링된 감축경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력과 관련된 배출량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에너지원이 Scope 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기업에 여러 유형의 에너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이는 SDA 목표 경계 내에 있어야 하며, 기업은 선택적으로 전력 목표에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 Power, CHP) 또는 기타 열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에너지와 관련되지 않은 Scope 1, 2 배출량을 목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업, 전력을 자체로 소비하는 기업, 송배전(T&D)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본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Building) 섹터 SBTi 워크샵



건물 세션은 **아일라 딩케이(Ayla Dincay) SBTi 기술 매니저**가 진행했습니다. 아일라 매니저는 건물 섹터를 위한 섹터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평방미터(CO₂e per square meter)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도시 집약도 측면에서 섹터별 탈탄소화 경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모든 섹터에 적용되는 절대량 감축 접근법(Absolute Contraction Approach)으로, 기업이 동일한 연간 비율로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권고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방법은 올해 11월에 발표된 건물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탄소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탄소 리스크 부동산 모니터(Carbon Risk Real Estate Monitor, CRREM) 감축경로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방법론이라며, 이 또한 매년 온실가스 집약도를 평방미터당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감축경로는 현재 약 4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건물 유형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국가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기관 SBTi 워크샵

Currently FIs can use three methods for calculating scope 3 financed emissions baseline and targets

Note: Methods evolve over time and SBTi is developing meta-criteria to evaluate additional methodologies

	Current available methods		
	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SDA)	Portfolio Coverage Approach (PCA)	Temperature Rating Approach (TRA)
Measures	Emissions per industry-wide unit	% of portfolio with SBTs	Ambition of portfolio's public targets
Example	Decrease real estate GHG emissions by 30% per m ²	Increase % of portfolio with SBTs to 50% by 2030	Align portfolio to temperature rating of 1.75°C by 2030
	— Reducing carbon output —	— Growing engagement —	

금융기관 세션에서는 **펜다 오스토바르(Pendar Ostovar) CDP 금융기관 책임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펜다 책임자는 금융기관 지침은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탄소 회계 금융 연합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 지침이 통합되어 금융 배출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접근법(PCA)은 기업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가 이미 SBT 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2040 년까지 100%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0 년에 20%에서 시작했다면 2040 년에는 매년 4%씩 증가하여 총 80%까지 늘려야 하며, 이를 통해 매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축 방법론으로는 온도 평가 접근법(Temperature Rating Approach, TRA)이 있으며, 해당 방법은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공식적인 온도 목표를 기반으로 자사 포트폴리오의 온도 점수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송(Transport) 섹터 SBTi 워크숍



운송 세션에서는 **사울 챔버스(Saul Chambers) SBTi 운송 섹터 책임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울 책임자는 운송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배출원이므로 운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SBTi 는 해양 운송 섹터를 위한 가이드라인(The SBTi Maritime Guidance)을 올해 5 월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 도로 및 철도(Aviation, Road & Rail)의 섹터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은 아직 개발 중이며, 현재 임시경로만 발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용 임시경로 지침 초안(Draft: The SBTi Interim 1.5C Target- Setting Pathway for Automakers)은 2023 년 10 월에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BTi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섹터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을 위한 지속가능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어느정도 개발되고 있을지라도 이 기술을 10 년 이내에 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수요를 제한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법은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사회, 정부, 기업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섹터 SBTi 워크숍



정보통신기술(ICT) 세션은 다이애나 파머(Diana Farmer) SBTi 북미 지역 책임자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 GSM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SBTi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침은 모바일 네트워크, 고정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ICT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2020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최신의 내용을 다루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SBTi 섹터별 기준 및 지침이 ICT 지침의 권장사항과 다를 경우, SBTi 기준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CT 지침에는 특히 목표 달성 전략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Scope 1, 2, 3의 목표 산정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 연도에 기반한 ICT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CAA 수료식]



마지막으로, 11/16(목)에 2023 Korea Leaders Summit(KLS)의 일환으로 CAA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료식은 한국콜마홀딩스 김종철 국장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은 후, 수료자 모두의 단체사진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CAA 프로그램 ROUND II 수료기업은 총 23 개사이며 이 중에서 수료식에 참여한 기업은 △(주)두산, △두산에너빌리티, △CJ 제일제당, △HD 현대인프라코어, △HL 만도, △HLB, △LS ELECTRIC(주), △LG 디스플레이, △인천도시공사, △카카오, △포스코이앤씨,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전 KPS, △효성첨단소재 총 16 개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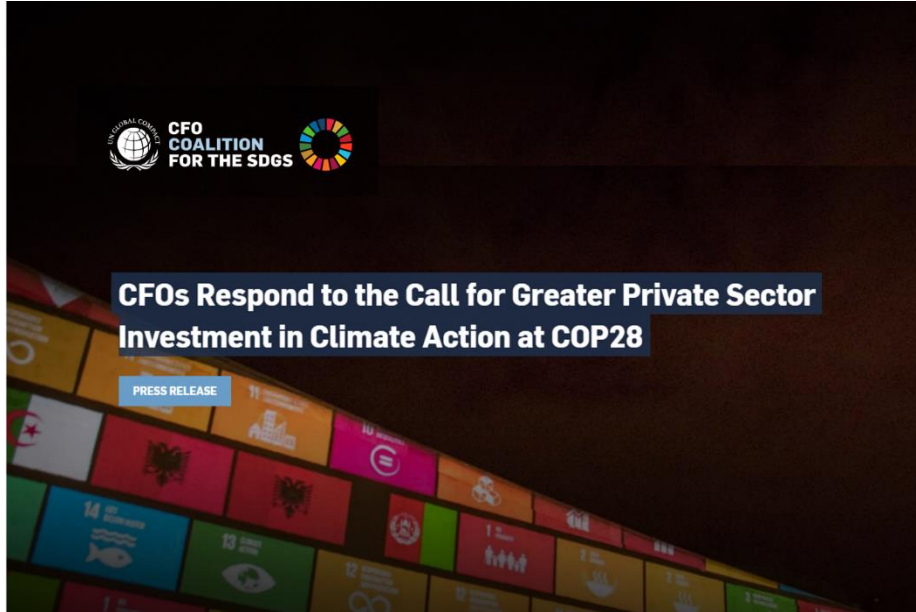
2024 년에도 우리 기업의 과학기반 감축목표(SBT) 설정 지원을 위해 CAA 프로그램을 이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장한별 과장, 김예영 연구원 (070-4327-9768,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CFO, COP28 계기 기후행동 위한 민간투자 확대 선언



지난 12 월 5 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 28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SDG 투자 포럼](#)' 세션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SDGs 를 위한 CFO 연합](#)'은 기후 행동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대규모 투자자로서, 2050 년까지 필요한 총 투자액 중 275 조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총액의 약 3 분의 1 에 해당됩니다.

유엔 지속가능 증권거래소(UN SSE), 두바이 금융시장(DFM),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연맹(GISD)이 공동 주최한 'SDG 투자 포럼'에서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지속가능성 전문가, 투자자들이 모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금융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DGs 를 위한 CFO 연합'이 올해 1 월에 발표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투자](#)' 보고서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 년까지 필요한 연간 9 조 달러의 자본 조달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전력, 산업, 농업, 건물, 이동수단 등 경제 여러 부문에서의 저탄소 성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기술 확보 관련 주요 직접 투자자입니다.

이 행사에서,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 기후금융은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UNGC 회원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기후 행동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투자자와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SDGs 를 위한 CFO 연합’은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10 조 달러 규모의 금융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FO 리더십 그룹에 소속된 70 명의 CFO 는 2025 년까지 SDGs 지원을 위해 [총 5,000 억 달러 이상 투자금](#)을 지원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EY 의 「[2022 지속가능한 가치 연구](#)」에 따르면, 기후 친화적인 투자 전략을 이행한 기업의 69%가 기후 투자의 재무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의 기후 리더들은 기후 투자를 통해 더욱 높은 보상 수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2.4 배 더 높았습니다.

‘SDGs 를 위한 CFO 연합’은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의 5 개 분야 중, ‘기후 앰비션’과 ‘SDG 투자 및 금융’ 두 분야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각 국 정부를 지원하고자 관련 지침서와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한편,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민간 부문이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 대 분야인 성평등, 기후 행동, 생활 임금, 수자원 회복, 금융 및 투자 등에서 기업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자세히 보기](#)

2. 정의로운 전환과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경제, 공급망, 시민사회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다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Forward Faster’는 기업들이 2030년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세계 공동 목표 달성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와 지침이 담긴 기후 행동 가이드를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1.5°C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기반의 넷제로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2030년까지 전세계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늦어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이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 28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개막함에 따라 UNGC 는 기후 행동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더욱 강력한 기후 행동이 수반되어야 할 영역을 식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앞서, 먼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 행동 가속화 가이드의 5 가지 핵심 단계를 소개합니다:

1. 서약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넷제로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을 위해 여기([SBTi 서명 신청서](#))에 서명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귀사는 SBTi 의 실사 과정을 거친 뒤 org 에 ‘서약’ 한 것으로 등재되며, UNGC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 검토

여러분의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별 지침 및 프로젝트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BTi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SBTi의 분야별 지침을 살펴보고 귀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보십시오.

3. 야심찬 목표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하여 과감한 과학기반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은 효과적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4. 인게이지먼트

파트너사 및 공급망 협력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SBTi는 이러한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5. 학습

UNGC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세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대한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들은 'Resource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 국문 번역본은 UNGC 한국협회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위와 같은 5 가지 필수 단계를 기업 운영 전반에 도입함으로써 전 세계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회복 탄력적이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COP28의 지속가능한 기술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3. 수자원 회복탄력성을 위한 기업 행동 5 가지



현재,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5%만이 정상 궤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유엔은 2030년까지 수자원 및 위생 관련 목표인 SDG 6 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이 4 배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 년 물의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물 부족으로 인해 2050 년까지 일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평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수자원 회복탄력성, 금융 및 투자 등 기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5 가지 영역에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Forward Faster 의 수자원 분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2030 년까지 주요 100 개 유역의 수자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를 통해 2030 년까지 최소 100 개 주요 유역 복원을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자원 복원을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5 가지 행동 가이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보다 상세 내용은 [Moving Water Resilience Forward Faste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자원 분야의 표준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수자원 사용과 보전에 관한 업계 규정과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자원 남용을 줄이며,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의 표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2. 과학기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과학기반목표 네트워크(SBTN)는 2024 년까지 담수의 과학기반 목표 설정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자원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을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과학기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수자원 효율성 제고 및 폐수 관리를 위한 최상의 시행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폐수 관리는 수자원 회복탄력성 복원의 초석입니다. 기업은 수자원 효율성에 있어 최상의 방법을 적용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최적화하여 수자원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폐수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수자원의 재사용 및 순환을 위해 검증된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으며, 생태계와 시장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수자원 및 위생에 대한 안전하고 회복탄력적인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 및 공급망 전반에 이르기까지, 수자원과 위생에 대해 안전하고 회복탄력적인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수자원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5 가지 행동을 기업 운영에 적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실천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보세요. 특히,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선도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성공하는 리더는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며 전진하는 리더입니다. 함께, 더 빠르게, 전진합시다.
#ForwardFaster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kakao

1. 기업 소개

카카오는 2010년에 카카오톡을 출시하고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스토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비즈니스들은 일상의 영역을 모바일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새로운 편익을 전달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중심의 에코시스템 안에서 시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 홈페이지: <https://www.kakaocorp.com/page/about/kakaoCulture>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카카오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세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ESG 경영 활동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에 담아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2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 검증을 거쳐 제작하고, 추가적으로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 카카오 유튜브 ESG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ZfY43W2IDM>

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ESG 성과를 인정받아, DJSI, MSCI, 한국 ESG 기준원 등의 ESG 평가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ESG 평가 결과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카카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4 대 영역인 “사회문제 해결, 함께 성장, 디지털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ESG 보고서에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중점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과 책임	함께 성장을 위한 약속과 책임	디지털 사회를 위한 약속과 책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약속과 책임
실천 분야	서비스와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크루 가치 증진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리더십 향상	기후변화 대응
	소셜임팩트 창출	파트너 동반 성장	알고리즘 윤리 확립	그린디지털 구축
		건강한 IT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건강한 IT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생물 다양성 보존
신뢰 강화를 위한 기반 영역				
	지배구조 선진화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 카카오 ESG 보고서: <https://www.kacaocorp.com/page/responsible/esg>

3. 사례

3-1.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 수립 및 카카오 카본 인덱스 성과 관리

카카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 원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2022년 카카오 제주オフィ스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화, 2023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재생 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는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안산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통해 기존의 임대 데이터센터 대비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을 약 15%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카카오 이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사회적 간접 가치 기여를 카카오만의 지수로 계량화하여 “카카오 카본 인덱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카카오 카본인덱스는 약 63,000,000 KUC(Kakao Users’ Carbon-reduction)로 집계되었습니다.

☀ 카카오 홈페이지 - 액티브그린: <https://www.kakaocorp.com/page/responsible/activegreen>

3-2. DAO 선임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

카카오는 국내 IT 기업 최초로 DAO(Digital Accessibility Officer)를 선임하고,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Barrier Free Initiative)’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DAO 조직은 “접근성”을 정식 프로세스에 넣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접근성 가이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일부 배포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화면낭독기능으로 모든 이모티콘의 의미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이는 ARS’기능을 만들고, 저시력장애인을 위하여 ‘고대비 모드 최대화(21:1)’를 설정하는 가독성 작업을 했습니다.



☀ 카카오 유튜브 - 장벽 없는 내일을 꿈꾸는 카카오의 당연한 노력:

<https://www.youtube.com/watch?v=ifcZU8POW0>

3-3. 인권 및 기술윤리 전담 조직 신설

카카오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크루, 파트너, 이용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추구합니다. 특히,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권과 기술윤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Tech for Good Committee)”를 설립하여 기술윤리를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있는 AI 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와 주요 공동체가 관련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8개 공동체의 기술 최고 리더(CTO, Chief Technology Officer)와 함께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4. 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카카오는 카카오의 대표 상생 브랜드인 “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연매출 10억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소정의 비용(30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소신상인 프로젝트 중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그램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단골 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총 111개의 전통시장에서 1,471명의 상인들이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2023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표창(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 카카오 비즈니스 - 소신상인 프로젝트: <https://business.kakao.com/info/smb/>

☀ 우리동네 단골시장 홈페이지: <https://dangolmarket.campaign.kakao.com/>

그 외에도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가버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버치 프로그램은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농축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재고 부담을 낮추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누적 약 3,930톤의 농축수산물 판매했으며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 제가버치 홈페이지: <https://makers.kakao.com/promotion/263>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4-1. SDGs 기여 목표 및 2022년 카카오의 기여 활동

목표	2022년 카카오 기여 활동
5 GENDER EQUALITY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판교아지트 어린이집 신설 배우자 포함하여 출산 및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제공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산 데이터센터 친환경 설계 적용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예비 인증서 획득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인증 획득 서버 사용 및 설비 효율 개선 판교아지트 LEED 인증 Gold 등급 획득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전통시장 지원하는 소신상인 프로젝트 '우리동네 단골시장' 진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컨설팅 제공 카카오벤처스 ICT/SW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상생 Boost-Up', 'Re:Born'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지원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사형 표준사업장 '링키지랩'을 통해 2022년 장애인 직원 23명 고용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및 사내카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직무 운영

<p>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p>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뱅크 휴면예금/보험금 확인 서비스 출시 → 휴면예금/보험금 지급 건수 28.2 만 건, 지급액 총 80.1 억 원 · 오픈소스 관리 서비스 '올리브 플랫폼' 운영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및 공유
<p>10 REDUCED INEQUALITIES</p>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igital Accessibility Officer) 선임 · 카카오 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크루 및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접근성 교육 진행 · 카카오톡 이모티콘 및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p>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p>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맵 지하철역 단차 정보 제공 · 제주 지역 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장소를 안내하는 '휠내비길' 서비스 지원
<p>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p>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메이커스 이용자 참여형 재활용 프로젝트 '새가버치' 진행
<p>13 CLIMATE ACTION</p>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카카오 약속과 책임' 보고서 발간
<p>14 LIFE BELOW WATER</p>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 수립 및 카카오 카본 인덱스 성과 관리 · 2040 Net Zero 이행 목표 선언 · 제주 오피스 재생에너지 100% 전환 · 2022 멜론뮤직어워드 운영상 발생한 탄소배출량 측정 및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상쇄 추진
<p>15 LIFE ON LAND</p>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바다 캠페인'을 통해 해양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금 모금 · '에코씨드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해양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 · 제주 해양 정화를 위해 제주 임팩트 챌린지 중 플로빙 프로젝트 지원
<p>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p>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조성을 위한 기부금 조성 및 식재 활동에 기부 진행 → 멜론 '숲;트리밍 프로젝트',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그린 챌린지' 등 · 카카오같이가치 산불 피해 산림 복원 모금 진행
<p>17 PARTNERSHIPS FOR THE GOALS</p>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 공동체 윤리경영 체계 강화 → 공동체 공통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사 교육/ 공동체 법무 테이블 운영 ·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 참여 인원: 3,334 명(수료율 92.4%) · 내외부 상담/신고제도 접수 사례 100% 처리 완료
<p>17 PARTNERSHIPS FOR THE GOALS</p> 	(1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같이가치 플랫폼을 통해 참여 확산 → 누적 기부 건수: 약 4,758 만 건 / 누적 기부 금액: 약 589 억 원 ·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을 통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혁신가들 지원

4-2. 2023 년 현재 카카오가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CDP DISCLOSURE INSIGHT ACTION
 RE 100	 SCIENCE BASED TARGETS <small>DRIVING AMBITIOUS CORPORATE CLIMATE ACTION</small>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LX 판토스,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UNGC 가입



- 종합물류기업 LX 판토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국제협약)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고 29 일 밝혔다.
- LX 판토스는 UNGC 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책임 및 기업윤리, 근로자의 인권존중,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그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 신원, ESG 경영 강화...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 신원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했다고 23 일 밝혔다.
- 신원은 지난 22 일 서울 중구 소재 UNGC 한국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UNGC 가입을 공식화하고 향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질적 향상에 나선다. 이날 가입식에는 박정주 신원 대표와 유연철 UNGC 한국협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 1

3. 유한킴벌리, 40년간 국내외 숲에 나무 식재... ‘푸른 강산’ 조성 노력



- 국내 최장수 공익 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널리 알려진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국·공유림에 5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꿔 왔다. 탄소중립의 숲 조성,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와 꿀벌 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숲 복원 프로젝트, 몽골 유한킴벌리 숲 조성, 동해 산불 피해지 복구 등 숲을 매개로 기후 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아일보

4.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듈러 사업을 추진한다.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 학교, 병원 등 사회 기반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다.
- 15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택 부회장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비탈리 김 미콜라이우 주지사와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기업 대표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

5. 네이버, 국가보훈부와 보훈문화 확산 손잡는다



- 네이버와 국가보훈부는 28 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에서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7 일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국가보훈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손쉽게 보훈 관련 콘텐츠와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뉴스스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11 월 15 일부터 12 월 19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6 곳입니다.

- 현대차증권
- 한솔섬유
- 피앤씨랩스
- 전남개발공사
- 에스파워
- 와이제이링크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15 일부터 12 월 19 일까지 39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4 개)

- 국가철도공단
- 사람과세계경영학회
- 양주시공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CoP (총 35 개)

- (주)신세계
- KDB 산업은행
- SK 스페셜티
- SK 주식회사
- SK 네트워크(주)
- SK 텔레콤(주)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교보증권(주)
- 네이버 주식회사
- 노을(주)
- 부동산다이렉트
- 삼성전자(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용보증기금
- 씨큐브 주식회사
-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 에스케이케미칼
-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 엠와이소셜컴퍼니
- (주) 만도
- (주)LG 생활건강
- 주식회사 공공
- (주)아모레퍼시픽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케이씨씨 글라스
- 코스맥스 (주)
- 한국석유공사
- 한미약품(주)
- 한전 KPS(주)
- 현대건설기계
- 현대건설(주)
- 현대글로벌비스 주식회사
- 현대자동차(주)
- 힐라홀딩스

※올해 새롭게 런칭하는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디지털 플랫폼이 11 월 16일부터 재개되어, UNGC 회원사는 플랫폼에 접속을 통해 2024년 3월 15일까지 CoP 제출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오픈 지연으로 인해 **2023년도 CoP 제출의 경우,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CoP 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또는 "제명(Delisted)"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CoP 를 제출코자 하는 회원사는 [옵션 1. CEO 지지선언문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옵션 2. CEO 지지선언문과 CoP 질문지] 중에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